유배육아일기 『양아록(養兒錄)』에 나타난 격대교육(隔代敎育)의 의미

문혜경* · 양진건**

〈차 례〉

1. 머리말
2. 이문건의 생애와 유배생활
3.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내용
4.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의미
5. 맺음말

【국문초록】

『양아록』은 16세기 유학자 묵재(默齋) 이문건(李文楗)이 유배지에서 16년 동안 손자를 기르며 기록한 양육일기이다. 이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의 아동교육에서 나타나는 조부모에 의한 격대교육(隔代敎育)의 구체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 세대를 뛰어넘는 격대(隔代) 간의 교육은 기대수준이 높아 엄격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부모와는 달리 조부모의 풍부한 육아경험을 바탕으로 자애로움과 엄격함을 겸비함으로써 또 다른 내용의 가정교육이 되었다.

특히 유배라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혈손을 잘 양육하여 가

* 제주대학교 시간강사(제1저자)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문의 계승과 번성을 열망한 유배인의 숨결이 배어있는 『양아록』에는 조부의 사랑과 가문의식, 모델링을 통한 학문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격대교육의 내용을 추출해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에 있어 사랑의 '에너지'와 '방향성'의 균형, '관계중심' 가정교육의 복원이라는 격대교육적 의미로 귀결된다.

주제어 : 양아(養兒), 격대(隔代), 격대교육(隔代敎育)

1. 머리말

『양아록(養兒錄)』은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이 유배지에서 16년 동안 손자를 기르며 양육과정의 소소한 일들을 기록한 유배육아일기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양육일기를 남기는 것이 드문 일인데 더욱이 유배지에서 손자를 기르며 기록했다는 점에서 『양아록(養兒錄)』은 조선시대의 격대(隔代)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육아교육의 전형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만이 아니라 유배지 기록이라는 점에서도 아주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전통사회에서 어린 아동은 할아버지와 함께 자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노인과 더불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양육일기를 남기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문건의 경우는 가족들을 유배지로 이주시켜 23년간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가문계승을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손자를 지극 정성으로 길렀고, 그 결과 양육일기를 남겼던 것이다.

이문건은 우선 본인이 유배를 왔기 때문에 가문계승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유배지에 와서 6명의 자녀 중 5명이 죽었기 때문에 또한 위협을 느꼈을 것이고, 손자를 낳은 아들마저 죽었기 때문에 가문계승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이제 이문건과 손자

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격대교육(隔代敎育)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였으며 이를 기록하기 위해 양육일기를 남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가족이 보편적 삶의 형태였던 전통사회에서는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하여 침식을 같이 하며 손자녀에게 자애로움과 인격적 모본을 통해 가르치는 격대교육(隔代敎育)을 하였다.

전통사회에서 손자녀의 교육을 조부모가 담당하게 된 이유를 이순형(2000)은 '아동의 심리적 측면에서의 교육 효과를 고려한 조치'를 타당한 가설로 설명하고 있다. 즉 부모는 자녀에 대한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조부모는 자애로운 심정이 앞서기 때문에 손자녀가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사회에서의 부모-자녀간 적은 연령차는 심리적 겨루기와 경쟁심을 유발하여 비교육적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부모는 세대를 건너뛰기 때문에 자애로움이 있어 바람직한 교육이 된다는 것이다.[1)]

조선시대 '격대교육'의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절제된 사랑이었다.[2)] 부모에 의한 교육은 익애(溺愛)보다는 올바른 가르침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3)] 당시에는 압존(壓尊)이라 하여 어른에 대한 공대를 그보다 더 높은 어른 앞에서 낮춰야 하는 예가 있었는데, 부모 앞에서 자신의 자녀를 귀여워 하는 것 역시 압존으로 보았다.[4)] 따라서 아버지는 할아버지 앞에서 사랑표현을 절제해야 했고 아동에겐 할아버지보다 두려운 존재로 인식되었다. 또 자식에게 엄격함을 앞세웠기 때문에, 조부모 앞에서 부모는 언제나 아동을 꾸짖는 위치에 있었

---

1) 이순형,『한국의 명문 종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pp.282-283.
2) 정재걸,「격대교육과 인성교육」, 새한철학회,『새한철학회 학슬대회 발표논문집』2015-11, 2015, p.118.
3) 안경식,『한국 전통 아동교육사상』, 학지사, 2005, p.181.
4) 이순형, 같은 책 p.313.

다.[5] 그러나 조부모에게 손자녀들은 자식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존재였다. 특히 자신들의 대를 이은 혈손으로서, 손자는 장차 가문을 이어줄 주체이고 손녀는 후에 출가하여 가격(家格)을 대표하게 된다. 따라서 조부모에게 있어 손자녀를 돌보고 교육하는 것은 노년에 주어진 사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또한 격대교육은 아이에게 학업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조부모와 손자녀 간의 수십 년 세월을 뛰어넘는 특별한 소통의 창을 열어주기도 한다. 서로가 밀착되어 생활을 공유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습방법이 없어도 서로의 필요를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6] 이에 더해 조부모가 오랜 생애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체득한 삶에 대한 통찰과 안목은 손자녀와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의 격대교육은 가족들 간 역할분담과 필요에 따른 협력을 통해 육아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나누고, 모두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가정교육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가족 관계가 정밀하게 잘 연결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문건의 가정이 아들의 병약함과 부재로 이어지는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양아록』에는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한 방법이었던 격대교육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격대교육이라 하여 특별한 교육내용과 방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세대를 건너뛰는 조손관계는 가부장권의 직접적인 계승관계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조손간은 관계의 특성상 각종 행위의 위계적 규범들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7]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정에

---

5) 최혜순, 양은호, 『한국의 전통육아』, 신정, 2010, p.274.

6) SBS스페셜 〈그들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 격대교육〉 제작팀, 『SBS스페셜 격대육아법의 비밀』, 경향미디어, 2013, p.76.

7) 윤용섭 · 김미영 · 장윤수 · 정재걸 · 최효찬 · 장정호 · 이창기, 『노인이 스승

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지만 부모와는 차별화되는 교육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양아록』의 조손관계에는 사회인으로서 주류세계로 부터의 분리와 고립, 이로 인한 가문의 몰락에 직면한 이문건이 손자에게 집중과 집착의 양상도 혼재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그가 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손자에게 쏟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사랑은 유학에서 상정한 인격을 일관되게 지향하고 있다. 이문건은 유배인이지만 지식인으로서 뚜렷한 육아관을 가지고 역동적인 노년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양아록』을 중심으로 한 논의들은『양아록』을 통해 조선시대 아동에 대한 인식과 교육적 의미, 심리·역사적 측면, 출산문화 등으로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양아록』에 나타나고 있는 조선 중기 사대부들의 아동에 대한 인식[8]과 육아의 목적, 내용, 양육자 역할의 교육적 측면[9], 조선시대 사대부 가정의 교육구조에 대한 접근[10]과 역사적 맥락에서 이문건의 아동교육관[11]에 대해 고찰한 연구들은『양아록』을 교육학에 입각하여 접근하고 있다. 또한 이문건의 양아 과정에서의 심리적 추이를 따라가며 조손간의 갈등 원인과 양상을 살펴보거나[12] 이문건의 생태적 사고와 실천행위를 중심으로 교육의 세계관, 발달관, 아동관, 교육관의 네

이다』, 글항아리, 2015, p.106.

8) 백혜리,「조선중기 양아록(養兒錄)을 통해 본 아동 인식」, 한국아동학회,『아동학회지』22-2, 2001, pp.205-218.

9) 장정호,「묵재默齋『양아록養兒錄』의 교육학적 이해」, 한국국학진흥원,『국학연구』, 18, 2011, pp.101-128.

10) 양진건·김유리·현은선,「유배양육일기『양아록(養兒錄)』의 교육적 의미」, 한국교육사상연구회,『교육사상연구』27-1, 2013, pp.147-162.

11) 강수연,「이문건의 아동교육관과 그 의의」, 역사와 교육학회,『역사와 교육』20, 2015, pp.131-171.

12) 정시열,「묵재 이문건의『養兒錄』에 나타난 조손 갈등에 대한 일고」, 동양고전학회,『동양고전연구』50, 2013, pp.179-209.

가지 관점에 주목하여 고찰[13]하기도 하였다. 이 두 연구는 현재의 육아와 순환적인 삶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위한 성찰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중에서 본고와 같이 『양아록』을 교육학적 입장에서 접근한 논의들은 격대교육을 부분적으로만 다루고 성찰적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교육 위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정교육의 약화 내지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격대교육에 중심을 두고 전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문건의 유배육아일기인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격대교육의 의미를 도출하여 현대 가정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문건의 생애와 유배생활

이문건(李文楗, 1494-1567)의 본관은 성주(星州)이고 자는 자발(子發), 호는 묵재(默齋)이다. 그는 이장경을 중시조로 하고 李兆年-李褒-李仁敏-李稷-李師厚로 계승되는 성주이씨 명문집안의 자손이다.[14] 벌열(閥閱)가문으로 혈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탄탄한 인맥은 이문건이 유배생활 중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다.

이문건은 영남사림을 대표하는 조광조(趙光祖)의 문하에서 둘째 형 충건(忠楗)과 함께 수학했다. 그러나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조광조가 화를 당하자 그 시신을 수습한 것 때문에 형은 사사되고, 이문건은 낙안(樂安)에 유배된다. 이후 1527년(중중 12) 사면되어

---

13) 김은경・권대원, 「양아록(養兒錄)의 생태적 함의」,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생태유아교육연구』13-2, 2014, pp.153-170.

14) 김현영, 「16세기 한 양반의 일상과 재지사족」, 조선시대사학회, 『조선시대사학보』18, 2001, p.69.

별시문과에 급제하면서 순조로운 관직생활을 하지만 을사사화(乙巳士禍)에 다시 연루되면서 23년간 유배생활을 하고, 1567년(명종 22) 성주에서 생을 마감한다.

이문건은 유산과 질병으로 다섯 아이를 잃고, 그 중 장애를 가진 아들 온(熅)만이 살아남아 다복하지는 못했다. 간절히 바라던 후사(後嗣)를 얻었지만, 유배지에서 외아들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문건은 유배인이었지만 상당한 자유를 누리며 가족과 다수의 노비를 거느리며 살았다. 때문에 유배지에서 그의 선결과제는 많은 가족을 부양하는 일이었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아들을 대신하여 가장으로서 가계운영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집안대대로 중앙 관직을 지낸 가문으로 이문건 역시 중앙에서의 관직생활과 성주에서의 오랜 유배생활로 중앙과 향리의 관인, 재지사족(在地士族)들과도 폭넓은 인맥을 형성하였다.[15] 이러한 교유관계를 통해 경제적·정신적 지원을 받았고, 전국의 농지에서 농업경영과 노비의 신공 그리고 녹봉수입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다.

또 이문건家는 당시 사대부가의 대표적인 부업이었던 양잠을 하면서 방납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남겼다.[16] 또 성주지역 재지사족들에게 잠종을 나누어 주며[17] 이들과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에 이문건에게는 청탁이 증가하였고 관아를 통해 해결해 주면서, 민관 사이에서 유능한 중간자 역할도 수행하였다.[18]

이렇게 이문건은 유배인이었지만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괴산에 입향처를 마련하여 자신과 후손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한편,

---

15) 장성덕,「묵재 이문건의 유배시기 교유양상」,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12-13.

16) 남미혜,「16세기 사대부 이문건가의 양잠업 경영에 대한 일 연구」, 조선시대사학회,『조선시대사학보』26, 2003, p.172.

17) 남미혜, 같은 논문, p.154.

18) 이복규,「묵재 이문건의『묵재일기』에 대하여」, 한국국어교육연구회,『국어교육』97, 1999, p.310.

정치적 경륜과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향촌사족의 형성과 결집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19] 이러한 이문건의 모습은 학문에 매진하며 유배생활을 했던 대부분의 유배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20] 가문을 이을 자손의 부재와 재기(再起)를 도모할 수 없는 유배인의 신분으로 전락한 이문건에게 현실은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때문에 유배생활 중에 병약한 아들을 대신하여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손자의 존재는 그의 가문에 희망의 불씨가 살아난 것을 의미한다. 이문건은 경제생활과 함께 손자의 육아와 교육에 온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두 형과 조카들을 사화(士禍)로 모두 잃었고 아들마저 앞세우게 되자, 가문계승을 위해 손자를 지극정성으로 양육한다. 그리고 그 성장과정을 기록한 유배육아일기인 『양아록』을 남겼던 것이다. 이문건이 자신과 주변의 일상 및 육아의 과정 등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고자 했던 것도 가문의 명맥을 잇기 위한 그의 치열한 몸부림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내용

1) 조부의 지극한 사랑

전통사회의 가정에서 양육의 방향은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태어난 무한한 '사랑(仁)'을 발현시킴으로서 아이를 사랑의 존재로 키우는 것이었다. 이문건도 손자를 양육하면서 "아름다운 천품(天稟) 온전히 하여, 장성해서도 그 천성을 어그러뜨리지 마라"고 하며

19) 김소은, 「16세기 성주지역 사족의 교유와 서원건립계획」,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 26-2, 2003, p.158.

20) 장성덕, 앞의 논문, p.8.

유학의 신념에 따라 선한 심성을 잘 보존할 것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양육자의 양육태도이다. 맹자는 인(仁)이란 사랑의 발현을 막고 있는 나(己, 我, 身)라는 바위가 제거된 상태, 즉 '내가 없는 사랑(無我之愛)'으로서 진정한 사랑을 일컫는 것이라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사랑은 진정한 사랑에 가깝다[21]고 할 수 있다. 조부모는 부모에 비해 성취의 기대보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게 됨으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문건이 아들과 손자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현상은 극명하게 나타난다. 특히 모친의 여묘살이를 함께 하면서 본격적으로 아들을 가르칠 때 관계의 손상은 극에 달한다.

이문건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컸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들에 대한 실망과 화는 모진 매질과 학대로 이어졌다.[22] 이로 인해 아들은 공부에 흥미를 잃었고, 두려움으로 아버지를 피해 서울로 도망가기 일쑤였다.

> 아침에 기성(箕星)이 시(詩)를 풀이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서 긴 판목으로 기성이를 때렸는데, 판목(板木)이 부러졌다.[23]
> 저문 후에 기성에게 화가 나서 대나무로 때렸더니[24]

> 때려서 크게 꾸짖고 가혹하게 옷을 벗겼는데, 너무 무섭게 한 나머지 얼굴과 손의 매 맞은 상처에서 피가 났다. 내가 이처럼 난폭하게 한 것은 대개 가르치고 지시하는 뜻을 매번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25]

---

21) 윤용섭 · 김미영 · 장윤수 · 정재걸 · 최효찬 · 장정호 · 이창기, 앞의 책, pp. 172-176.

22) 정연식,『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2』, 청년사, 2001, pp.139-141.

23)『默齋日記』, 1535-11-23 "朝,怒箕星不解詩,以長板打之,板折."

24)『默齋日記』, 1535-11-24 "昏, 怒箕星, 以竹打之"

25)『默齋日記』, 1535-12-9 "大責以打, 脫衣以虐, 過於猛, 面與手, 被打傷血. 吾之燥暴如是, 蓋甚怒敎令之意每不省故也."

여막을 지켰다. 온(熅)도 따라서 지켰다. 온이 저녁에 도망하여 서울로 돌아갔다.[26]

이에 반해 손자에게는 너무도 자애로웠다. 『양아록』에 나타나는 할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은 손자의 출생과 성장에 온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이문건은 남성임에도 손자의 출생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산관(産關)의 선택, 손자의 출생 소식에 감초탕과 꿀을 빨리게 하고 입속 닦아내기를 명하며 태(胎)의 처리에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그러하다. 출생하는 순간부터 치러야 할 모든 과정에서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손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할아버지의 간절함과 지극한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묵재일기』에는 그가 매일 2~3번씩 가족이 머무는 우가(寓家)로 내려가 손자를 살폈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치아가 나오는 과정, 규준적 변화를 보이는 고개 가누고 앉기[27], 기어다니기[28], 일어서기[29], 걸음마[30] 등의 운동발달 과정, 발병 및 치병(治病)의 과정, 일상사 등을 돌보며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가 손자에게 얼마나 집중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양아록』

---

26) 『默齋日記』, 1536-7-19 "守廬. 熅從之. 熅夕逃還京."

27) 이문건 지음, 이상주 역, 『양아록』, 태학사, 1997. 「習座」, "四月堪提抱, 頸强不用扶. 六朔座能定, 朝晡覺漸殊."

28) 이문건 지음, 같은 책, 「匍匐」, 七月 望時, 始府身作勢, 八月望後, 能運. 7월 보름 때 비로소 몸을 엎드려 기려는 형세를 짓더니, 8월 보름 후 기어다닌다. "張肢以據地, 擧身如立馬. 漸能匍匐行, 天機眞不假."

29) 이문건 지음, 같은 책, 「始立」, 十一月 十五日, 是日, 冬至前 數日, 亦如自立云. 11월 15일 처음 일어섰다. 이날 동지전 수 일인데 또한 처음 일어섰다고 한다. "兩手提他物, 蹲踞任兩足. 如斯一朔餘, 稍自伸股立. 冬至陽復生, 爾立會比日. 祝汝步由茲, 勿爲非橫跌. 從容禮義涂, 永言保終吉."

30) 이문건 지음, 같은 책, 「習步」, "引手攀囪欞, 橫步習移足. 漸能運一步, 數模蹶數立. 轉動無歇時, 累步異前日. 向我擧兩手, 笑投如畏跌. 撫背更摩腮, 携弄呼吾吉."

의 서문(序文)에서 손자의 발육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손자를 애지중지하는 할아버지의 마음 때문임을 전제한다.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죽고, 아들마저 건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손자의 존재는 그의 표현대로 "귀양살이 쓸쓸하던 차에 마음 흐뭇한 일"로 그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손자가 할아버지를 잘 따라서
병진년(병진 1556) 봄에 젖을 떼고,
내 잠자리에서 자라 불러 들였네.
이불에 파고들어 내 가슴을 만지며,
잘들 때면 내게 안기는구나.
잠에서 깨어나면 매 번 할아버지를 부르고,
내 가까이 오며 두려워 할 줄 모르네.
손자가 잠자는 틈에, 일어나 책을 보다가,
잠에서 깨면, 끌어 안어 주었지.
손자를 안아 눕히고 그와 더불어 잠자며,
밤을 함께 지내고 항상 따로 놔두지 않았네.[31]

이렇게 극진한 할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은 안정애착 형성의 토대로서, 손자에게는 정서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지킴이 역할[32]이 되었을 것이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이문건은 자신의 슬픔보다는 어린 손자가 감내해야 할 아픔과 장래에 대한 걱정을 더 앞세운다. 장애로 인한 아들의 인생도 기구하지만, 그로 인해 부정(父情)에 목마를 수밖에 없었던 손자를 보는 할아버지는 안타까움과 고통으로 절규한다.

---

31) 이문건 지음, 앞의 책,「愛翁吟」, "斷自丙辰春, 呼令宿我帷. 入懷捫余乳, 入睡襯余肌. 覺來每呼翁, 近體無惧疑. 乘寢起看書, 輒覺起携持. 挽臥得復寢, 共夜常不遺."

32) 정영숙,「한국 여성노인의 잘 나이 들기: 성숙한 노화 개념의 탐색」, 한국고전여성문학회,『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3, 2011, p.15.

자식의 죽음을 탄식하며

정사년(丁巳 1557) 6월 25일, 병든 애비 죽으매 그 옆에서 곡하네.
애닯고 애달픈 너의 인생,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으니,
훗날까지 아버지 얼굴 자세히 기억하려 애써야 하리라.
…
죽은 네 애비와 너, 너무도 가련하고 불쌍하여,
슬픔에 겨워 때때로 문득 절규하노라.[33]

또한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전통사회에서 경기를 자주하고 병치레가 잦은 손자를 보살피며 자신의 운명으로 인한 영향은 아닌지 경계하면서 늘 두려워한다. 그래서 『양아록』 곳곳에는 아픈 손자를 돌보며 "귀머거리가 될까", "털끝 하나라도 잃을까 걱정이라", "천금처럼 귀한 손자", "홍역이 다 나았으니 누가 가장 좋아 하리요? 흰 머리 할애비라지.", "손자가 일 푼 놀라면 할애빈 십 푼 이상 놀래라", "잠잘 적에도 위험한 꿈을 꿀까 두렵도다."라며 손자의 건강에 전전긍긍하며 고심하는 애끓는 사랑이 묻어난다. 아들에게는 가여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이러한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은 볼 수 없었다.

이문건은 손자가 여섯 살이 되기 전까지는 치병에 온 힘을 기울였다. 16세기 조선은 유학의 이념에 따른 척불배무(斥佛排巫)의 국정기조와 다양한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범신(汎神)적인 사고[34]가 혼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치사율이 높았던 천연두는 두신(痘神)이 몸에 강림해서 발생하는 질병[35]으로 여겼다. 『양아록』에도 천연두(마마)가 마을에 퍼지자 이문건은 두신을 자극하지 않기

33) 이문건 지음, 앞의 책, 「遭喪歎」, "丁巳季夏廿五日, 病爺捐生哭其側. 哀哀爾生幼失怙, 後時面目爭細識 … 悼亡怜爾兩難堪, 哀至時時便號絶."
34) 최혜순, 양은호, 앞의 책, p.187.
35) 정연식, 「조선시대의 천연두와 민간의료」,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14, 2005, p.100.

위해 제사와 길쌈을 즉시 중지하며 금기사항을 철저히 실천한다. 그리고 손자가 천연두에 걸리자 이문건은 '안신환(安神丸)'을 지어준다. 안신환의 성분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풀이를 해 보면 역시 '두신'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대부임에도 손자의 치병을 위해서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의지하며 위로받는 모순된 자신을 자조 섞인 어조로 합리화한다.

> 걱정이 심하다보니 혹 가리가 들어서인가 염려되어,
> 점쟁이에게 무당을 불러오게 하여 축원하도록 하네.[36]

> 무당을 불러 병을 낫게 하라 했더니,
> 날로 차도 있으리라 위로해주는데,
> 할애비의 정은 끝없어, 허망된 말도 귀 기울여 믿는다네.[37]

한편, 이문건이 손자를 무조건 귀여워하고 허용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군자의 인격을 지향했던 유학자로서 나쁜 습관은 한번 형성되면 개선하기 어렵다고 여겼기에[38] 엄격한 훈육도 병행하였다.

> **종아리를 때리고 나서**
>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는 건 내가 악독해서가 아니요,
> 아이의 나쁜 습관을 금지시키기 위해서라.
> 만약 악습(惡習)을 금지시키지 않으면,
> 고질이 되어 끝내 금지시키기 어려우리.
> 악습(惡習)의 기미는 초창기에, 바로 꾸짖고 금해야 하는 법.[39]

---

36) 이문건 지음, 앞의 책,「赤目嘆」,"憂深反慮或有祟, 遣卜仍敎招巫祝"

37) 이문건 지음, 앞의 책,「兒痢嘆」,"招巫令救解, 慰言差日向. 無窮父祖情, 傾耳信虛妄."

38) 안경식, 앞의 책, p.174.

39) 이문건 지음, 앞의 책,「撻兒嘆」,"撻兒我非惡, 冀禁兒習惡. 惡習如不禁, 癖痼終難禁. 習氣初起時, 正是訶禁時."

안경식(2002)은 '꾸중'이 우리 전통적 교육방법 가운데 하나[40]로서, 때로는 엄하게 꾸짖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문건도 양육함에 있어 마음의 본바탕을 깨끗이 닦아 나쁜 습관은 조기에 단절시켜야 된다고 보았다.[41] 이러한 모습 역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따라서 손자의 언어가 불손하고 어른에게 대들거나 고집을 부릴 때, 약속을 반복하여 어길 때, 절제하지 못할 때는 체벌을 가하며 엄격히 훈계하였다. 이문건은 훈계할 때 손자의 '선성(善性)의 보존'을 염두에 두고 '마음수양'을 늘 강조하며 마무리한다. 마음을 다스리고 선하게 보존하는 것이 자신을 온전히 하는 것이며, 할아버지의 소망임을 밝히고 있다. 할아버지의 훈계를 통해 손자가 꾸짖음의 의미를 스스로 깨달아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행동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즉, 사람의 됨됨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종아리를 때림
노닥이는 말이 잡스럽고 쌍스러워,
할머니가 꾸짖으며 금지시키네.
되바라진 손자는 반성하지 못하고,
도량이 부족하여 분하게 여기며 반항하네.
7세면 점차 지혜가 성장할 나이기에,
그러지 말라 하는 것이지.
똑바로 서게 하여 바지를 걷어 올리게 하고,
종아리를 때리며 꾸짖고 가르치네.[42]

유교사회에서는 개인의 천품(天稟)인 무한한 사랑을 세상에 발현

40) 안경식, 「구비설화에 나타난 전통 아동교육관 연구」,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24-1, 2002, p.205.
41) 강수연, 앞의 논문, p.155.
42) 이문건 지음, 앞의 책, "戱言雜淫穢, 王母訶禁止. 驕稚靡克省, 蹈器爲憤使. 七歲智漸長, 不可令遂此. 敎立揭其衣, 撻腿讓以理."

시키게 하는 것이 양육의 방향이었다. 이러한 양육은 맹자의 '무아지애(無我之愛)' 즉, 진정한 사랑(仁)의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문건의 손자 사랑을 대표적인 양육태도로 꼽을 수 있다. 그에게 유일한 손자의 성장과정을 함께하는 것은 자신이 늙어가는 것도 잊게 할 만큼 소중한 시간임을 토로한다. 손자를 기르는 일이 늙은 할아버지에게는 버거운 일이지만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날마다 마음을 두며 손자를 아껴주고 보살펴 주겠노라 다짐하고 있다.

2) 가문의식(家門意識)

가족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집안이라는 울타리 안에는 같은 시대에 사는 친족 뿐 아니라, 조상들과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까지 포함된다. 조상은 지성으로 숭배하여야 할 뿌리이며 자손은 생명의 연장선으로써, 가문의 희망이다.[43] 따라서 가문의 형성과 명문화는 모든 사대부의 공동 관심사였고, 이때 선결 과제가 가문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번창이었다.[44] 때문에 이문건은 손자의 출생으로 가문을 잇게 된 것에 대한 깊은 안도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연관 지으며 기뻐한다.

손자의 출생을 기뻐하여
천지자연의 이치는 무궁하게 생성이 계속되어,
어리석은 자식이 아들을 얻어 가풍을 잇게 했네.
지하에 계신 선조의 영령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리니,
인간세상의 뒤이어 올 일들이 다소 잘 되어 가리라.[45]

---

43) 장재천,「조선시대 가족문화의 특징과 교육적 의미」, 용인대학교,『용인대학교 논문집』27, 2009, p.185.
44) 이원수,「사씨남정기, 가문의 운명과 규문의 역할」, 한국어문학회,『어문학』90, 2005, p.297.
45) 이문건 지음, 앞의 책, "天理生生果未窮, 癡兒得胤繼家風. 先靈地下應多

이는 이문건의 손자 출생 소식을 접한 성주 목사와 조카 이염(李爓)의 축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성주(星州) 목사의 축시
하늘의 이치 원래 변화와 순환이 끝없어,
겨울을 뒤이어 해동(解凍)바람 부네.
수려한 이곳 산하의 정기를 받았으리니,
후일 조정(朝廷)에 풍성한 공을 세우리라.
구름이 처음 일어나듯 날개를 쳐 오를 것이요,
용맹한 기개 벌써 서려 있는 듯하네.
벼슬과 명가(名家)의 근원이 끊이지 않고,
문장은 정녕 할아버지를 계승하리라는 걸 알겠네.[46]

조카 이염(李爓)의 축시
남아를 낳았다는 기쁜 소식에 귀양살이 위로되고,
음덕(陰德)의 공으로 이미 조상의 가풍 잇게 되었네.[47]

성주 목사 조희(曺禧)는 이문건의 유배와 절손(絶孫)의 상황을 겨울에 비유하고 있다. 이어서 손자의 출생을 계기로 단절과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남은 물론 명문가로서의 위상을 이어갈 것임을 부각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조카 이염은 가문의 유지가 남아의 출생으로 성취됨을 언급한다. 이렇듯 조선시대의 가족은 가문중심 사고를 형성하여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혈통자가 대를 잇는 종족 보존의 기능이 강하였다. 때문에 남아는 '한 가정의 대를 잇는 존재'[48]로서 유교이념과 가문을 지키는 주체[49]였다. 맹자(孟子)도

助, 後事人間庶少豊."

46) 이문건 지음, 앞의 책, "天元剝復本無窮, 冬後還吹解凍風. 此地山河鍾秀篤, 他年廊廟樹功豊. 九天奮翼雲初起, 三日窺牛氣已融. 縉紳名家源不渴, 定知文獻繼而翁."

47) 이문건 지음, 앞의 책, "弄璋佳信慰羈窮, 已驗陰功嗣祖風."

48) 김영옥・백혜리, 「조선시대 아동 양육 방법에 관한 문헌적 탐구」, 한국영

"불효 중 가장 중대한 것이 뒤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것"[50]이라 하여 가문계승의 주체로서 남아의 존재를 중시하고 있다. 때문에 이문건도 후사를 얻지 못하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손자를 점지해주기를 기원하는 초제를 지냈다. 또 손자의 조노증(躁怒症)을 염려하며 "남자로 태어난 것은 매우 중대한 것"이라 이르고, 날마다 성찰하여 한 순간도 망령되게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는 가문을 이을 혈통자로서 수양을 통해 마음가짐, 몸가짐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문건은 가문의 유지와 번성은 근본적으로 유교의 교육목적인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지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자녀들을 병으로 잃거나 장애를 갖게 된 상황에서 손자의 잦은 병치레는 이문건으로 하여금 "가문의 박복함"을 떠올리게 했다. 손자가 태어난 해에 지은 축원문에 자신의 박복함이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할아버지의 처연한 심사가 절절이 묻어난다.

축원문 - 가문의 번창을 기원하여

신등은 엎드려 바라노니, 이미 복을 내리고 이미 주셨으니 모름지기 보살펴 주시고 모름지기 사랑해 주셔서, 재해가 함부로 침범하는 것을 몰아내고 구제하시어, 능히 성장하게 해주시고 양육하게 해주시어, 수명과 복을 구비해 주셔서, 견고하게 응결될 수 있게 해주시면, 즉 영원히 신의 아름다움에 힘입어, 실제로 신령스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잇고 잇고 또 잇고 이어서 가문을 끝없이 보존하고, 자자손손 세대를 유지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신등은 전율과 지극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 삼가 백배하며 글을 지어 위로 비옵니다.[51]

유아교원교육학회,『유아교육학논집』4-1, 2000, p.16.

49) 김용기,「出生談을 통해서 본〈蘇賢聖錄〉家門意識의 발현 양상」,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고전문학과 교육』21, 2011, p.339.

50)『孟子』. 제26장, "不孝有三章. 孟子曰不孝有三 無後爲大."

51) 이문건 지음, 앞의 책, "臣等伏望, 旣降旣與, 須管須慈, 驅除災害之橫侵, 得能長養, 分付壽祚之俱備, 俾克堅凝, 則永賴神休, 實沾靈祐. 承承繼繼,

가족과 친족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기구한 삶을 '가문의 박복함'과 '운명의 험액함'으로 결론 짓는다. 때문에 축원문을 지어 손자의 안녕을 통한 가문의 보존을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는 스러져가지만 손자에게는 하늘이 때를 정해주어[52] 가문을 번창하게 하는 큰 인물로 우뚝 서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마마를 앓은 손자를 돌보며 자신이 마마를 앓았을 때 그 액운을 감당함으로써 아들을 지키고자 했던 어머니와 같이 자신도 손자에게 같은 마음을 품고 애쓰게 됨을 연결시킨다. 손자를 돌보며 이문건은 어머니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신보다는 가문을 앞세우는 할아버지의 충정(衷情)을 손자가 알고 스스로 심신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가르친다. 즉, 개인의 건강은 가문의 이익과 연결되며, 모든 구성원은 '가문의 유지와 번창'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협동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53] 아울러 이문건은 조선시대 사대부로서 인격과 학문적 소양을 갖춘 군자인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가문의 명맥유지와 직결됨을 늘 염두에 두고 양육하고 있다.

> 네 자신이 잘 성장하여, 마침내 군자인(君子人) 되어,
> 훌륭하고 덕망 있는 가문을 이루게 되면,
> 생각건대, 응당 아름다운 복 누리고,
> 쇠퇴해가는 가통을 살려 면면히 이을 수 있으리라.[54]

保門戶以無疆, 子子孫孫, 持世序以不墜. 臣等不勝戰慄屛營之至, 謹百拜陳詞, 上禱"

52) 이문건 지음, 앞의 책, "窮人身縱己, 所希天定時."

53) 장재천 앞의 논문, p.4.

54) 이문건 지음, 앞의 책, 「行疫嘆」 "爾身善成立. 終爲君子人. 德門優可入. 惟應亨嘉祚, 繩繩衰緖緝."

그리고 사랑과 정성을 다해 돌보는 할아버지를 잘 따르는 손자를 보며 '한 뿌리 한 가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진정 서로 살아가는 이치'라며 흐뭇해 한다. 그리고 그 천성을 유지하여 변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문건은 가문을 이어간다는 것은 자손에게 단순히 가문의 내력을 전달하고 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그 마음을 헤아려 애정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가문의식은 내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싹트게 됨을 자상하게 짚어준다. 즉 친친(親親)의 관계에서 시작된 사랑이 확산되면서 가문의식으로 발전됨을 일컫는 것이다. 관계 중심적 사회에서 가문에 대한 의식은 관계를 통해 심고 교육을 통해 발아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을 통해 '같은 뿌리'라는 의식이 생기면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게 성장하면서 가문 내에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발견하며 가문의 성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써 공동의 조상에서 나온 가족은 가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55]

'가문의 유지와 번창'이 가부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였던 사회에서 격대교육의 의미가 발현된다. 이문건에게 손자는 조상들에 대한 도리와 책무를 수행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징표였다. 더욱이 유배생활을 하는 이문건에게 손자를 양육하는 일은 당시 일반 사대부가에서의 양육과는 무게감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명문家였지만 유배와 자녀들의 죽음으로 가문의 명맥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손자에게 가문의식을 고취하고 교육하는 것에 있어 그 누구보다도 치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사회 구조상 조부가 가문교육의 적임자였고, 이문건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업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양아록』에 나타난 이문건의 가문 교육은 격대교육의 대표적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55) 장재천, 앞의 논문, p.5.

이다. 때문에 이문건은 손자가 자신의 가계(家系)를 계승하여 가문을 유지하고 번성시킬 수 있는 덕망 있는 인격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3) 모델링을 통한 학문교육

동양에서 학문은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의 기본으로 여겼고, 유교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배우지 않으면 도리를 모르며 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없다고 하였다. 배움을 통해 사람의 성품과 나쁜 습관도 교정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율곡은 『격몽요결』의 서문에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될 수 없다."[56]고 밝히며 학문을 권장하고 있다. 유학에서 학문은 인간됨을 강조하여 오륜(五倫)을 실천하는 중심이면서,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

따라서 권학은 양반가정에서 자녀에게 부과되는 주된 과제로서 전통사회의 특징이었다.[57] 이문건은 돌잡히기에서 첫 번째로 필묵을 집어 들자 '문장을 업으로 삼을 아이'라며 손자가 학문적 소양을 가지고 태어났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손자가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절실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돌잡히기
첫 돌 되어 장난감 높이 쌓아놓고 시험해 보는데,
기어와 살펴보더니 붓과 먹을 집어 드네.
소리 지르며 참으로 한참을 가지고 노는 걸 보니,
뒷날 진실로 문장을 업으로 삼을 아이가 되려나 보다.[58]

---

56) 『擊蒙要訣』, 「序」, "人生斯世, 非學問, 無以爲人."
57) 이순형, 앞의 책, pp.299~300.
58) 이문건 지음, 앞의 책, "高陳戲琓試生期, 匍匐來看筆墨持. 擧手揚音良久弄, 眞成他日業文兒."

이문건은 려말(麗末) 주자성리학을 보급시킨 안향(安珦)에게서 배운 이조년의 후손이다. 따라서 성리학은 자연스럽게 가문의 가학(家學)으로 이어졌고, 이문건은 일찍부터 성리학적 사유체계를 습득할 수 있었다.[59] 또한 이문건은 개인적으로도 타고난 자질이 남달라 비교적 어린 시기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9년간의 정거령(停擧令)이 풀린 이듬해, 바로 문과에 급제할 정도로 학문적으로도 다재다능하였다.

세월이 흘렀으나 노년의 이문건은 유배인이지만 여전히 사대부로서의 학자적 수양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손자를 양육함에 있어서 이러한 할아버지의 모범적 실천의 삶은 손자에게 배움의 모델이 되어 그대로 나타나고, 할아버지는 "여자애들 노는 것과는 다르구나"라며 기특해 한다. 어린시기부터 일상생활에서의 관찰을 통해 체득하게 되는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럽게 손자에게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어서 그는 '문장을 업으로 삼으려'라며 손자 역시 사대부로서 학문적 자기 수양을 통해 등과(登科)와 함께 유교윤리를 행동화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를 갖추는 이중의 목적달성[60]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확신하고 있다.

책 읽는 모습을 흉내내는 것을 보고
독서하는 모습을 자주 보더니, 머리 끄덕이며 그대로 흉내 내는구나.
책을 들고 한참을 웅얼웅얼하는데, 여자애들 노는 것과는 다르구나.
어찌 문장을 업으로 삼으려,
어릴 적부터 스스로 여기에 힘쓰려는 것 아니리요?[61]

이렇게 이문건은 유교적 지식계급으로서 유배로 인해 정치인으로

59) 장성덕, 앞의 논문, p.19.
60) 유안진,『한국의 전통교육방식』,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p.300.
61) 이문건 지음, 앞의 책, "習見讀書狀, 俯昂效其爲. 取卷發聲長, 作戲非女兒. 安知不業文, 早自勉于玆."

서의 삶이 제한되자 자연스레 학자로서 독서와 글쓰기에 몰입하였다.[62] 책 읽는 모습을 흉내 내는 손자의 모습을 기록한 일기 첫머리에 '독서하는 모습을 자주 보더니'라고 하여 그가 유배생활 가운데에서도 사대부로서 공부의 기본인 '독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지배층인 사대부는 조선사회의 유교화를 위한 선도자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았기 때문에 '수신(修身)'의 자세는 유교 공부론의 핵심이었다.[63] 따라서 사대부들의 권학은 수기의 기본으로서 독서를 강조하였다. 이는 성현의 가르침이 책 속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숙독을 통해 완전히 소화함으로써 마음을 다스리고, 점점 깊이 있는 독서로 지식을 체계화 하도록 권했던 것이다.

이문건도 이러한 방법으로 손자를 가르쳤다. 『묵재일기』를 보면 수봉의 공부 순서가 千字文 - 史略 - 小學 - 大學 - 孟子로 진행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수봉은 천자문을 시작으로 8세(1558)에 사략을, 2년 후인 1561년에 『소학』을 읽어 할아버지가 매우 기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12세(1562)인 3월에 『대학』의 서문을 배우기 시작하여 4월에 대학을 끝내고, 7월부터 『맹자』와 『서경』을 겸하여 배웠다.[64]

이문건은 손자 수봉에게 글을 가르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아이의 준비도(readiness)에서 출발하였음을 전제한다. 이러한 자세는 조급해 하지 않는 노인세대의 연륜과 삶을 통해 터득한 지혜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혀가 짧아 발음이 부정확하고 집중하지 못해 잘 잊어버리는 성향과 '손자의 천품이 중간 수준'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는 침식을 같이하며 아이에게 집중한 면도 있겠지만, 오랜 삶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62) 양진건, 『제주교육 행정사』, 제주문화, 1991, p.149.

63) 김언순, 「조선시대 교화(敎化)의 성격과 사대부의 수신서(修身書) 보급」, 이화여자대학교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13, 2007, p.18.

64) 『默齋日記』, 1558-3-26 "誨兒文字", 1561-2-1 "孫始習小學.", 1562-3-1 "吉始習大學序", 1562-4-26 "吉孫畢習大學", 1562-7-1 "令吉習孟子大文, 敎首章, 兼習書大文."

이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된 노인세대 특유의 통찰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문건은 이렇게 냉철하게 파악하면서도 혈육이기 때문에 손자의 수준에 비해 학습결과에 대한 과잉기대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자신과 현상을 객관화하여 반성하고, 손자를 가르침에 자질과 능력을 고려하여 타일러 주어야 함도 상기한다. 자신을 성찰하여 자기개선을 이루려 노력하는 모습은 곧 자기수양을 완성한 성현의 모습[65]이다. 이문건의 태도는 유학에서 강조하는 지행일치(知行一致)에 대해 고뇌하며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격대교육의 장점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글자를 깨우치게 되어
손자의 지각(知覺)이 날로 발달돼,
시험 삼아 글자를 쓰고 읽게 하니,
혀가 짧아 발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심란하여 잘 잊어버리고 제대로 외지 못하네.
손자의 천품(天稟)이 중간 수준은 되니,
기대하는 바는 너무도 성급하다.
그렇지만 권하고 가르쳐 줄 때는
성내며 지도하지 않을 수는 없지.[66]

이와 함께 이문건은 어린 나이에 학습에 정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단지 '세월을 아끼길 바래서' 손자의 학습을 독려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9살의 손자가 할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공감'과 '이해하지 못함'이라는 양극단이 공

65) 정영숙, 앞의 논문, p.35.
66) 이문건 지음, 앞의 책, 「誨字吟」, "兒性日有覺, 試敎書字讀. 舌短韻未諧, 心擾忘難憶. 兒稟足中人, 責望猶太急. 因之勸誨際, 不能無怒勅."

존하는 상황이다. 손자는 틈만 나면 무리지어 나다니며 공부에는 게을리 한다. 그러나 권학에 있어서 할아버지의 태도는 명확하다. 이문건은 꾸짖어도 반성하지 않는 손자의 태도에 체벌도 아끼지 않으며 일깨워주려 하고 있다. 귀한 손자라고 무조건 이해하고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에는 분명하고 엄격하게 질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글의 말미에는 할아버지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는 책임은 온전히 손자에게 있음도 명확히 하고 있다. 손자에 대해 자애로우면서도 냉철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전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가정교육의 무게 중심을 잘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꾸짖고 나서
어린아이 중에 누가 날마다 부지런히 학습하리오?
할애빈 다만 네가 세월을 아끼길 바래서란다.
호되게 꾸짖었으나 반성하지 않고,
틈만 나면 떼 지어 사방으로 나다니네.
…
비록 끝내 어리석은 사람 된다 해도,
천명으로 이같이 태어났다면 원망하기 어려운저.[67]

언제나 열심히 책 읽기를 바라며 독려하지만 별 효과가 없자 일흔의 할아버지는 등잔불을 밝히고 직접 가르친다. 할아버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학문을 완성'하는 것이며, 그 방법에서는 '뜻풀이를 먼저 반복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다.

먼저 이문건이 강조하는 '학문을 완성'한다는 것의 의미는 지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다. 이문건이 양육에서 일관되게

67) 이문건 지음, 앞의 책, 「責兒吟」, "兒稚誰勤日習書, 翁徒望汝惜居諸. 縱然叱責無由省, 俟隙隨群走北西. … 雖終惰慢歸愚騃, 天命如斯難怨尤."

지향하는 것은 성현의 발자취를 따름으로써 '군자인'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수족(手足)을 온전히 보존하고, 심성(心性)을 견강(堅强)하게 하여 도의(道義)를 왕성하게 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결국 이문건은 학문의 완성에 있어 인격적 성장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손자에게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뜻풀이를 반복하여 설명해준다. 이는 조선시대 독서 교육의 목표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의리(義理)와 지혜를 공유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68] 이문건은 학문의 기본인 독서의 본질이 의리를 밝히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독서에서 지식습득보다는 뜻을 이해하여 '현재화'할 수 지혜[69]를 터득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손자와 뜻풀이 때문에 갈등을 겪고 공부를 중단하기도 하지만 할아버지의 열정은 식지 않는다. 학문을 완성하는 것이 가문 번창의 길로 이어지기에 할아버지는 권학(勸學)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할애비의 조급히 성냄을 탄식하며
내가 진심으로 하나 뿐인 손자에게 바라는 건,
시종일관(始終一貫) 학문을 완성하여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
글을 읽을 때 의미를 잘못 알까 걱정하여,
뜻풀이에 먼저 꼭 반복하여 설명해 주네.
어찌 손자는 간혹 황당한 말로 대드는가?
누가 장차 날마다 가르쳐 익혀 줄 수 있겠는가?
손자가 전의 잘못을 뉘우쳐 개선한다면,
인륜에 흠집 없이 내 은혜를 갚게 되리라.[70]

---

68) 김왕규, 「조선시대 독서법에 관한 소고」,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한자한문교육』5, 1999, p.141.

69) 김왕규, 같은 책, p.142.

70) 이문건 지음, 앞의 책, 「老翁躁怒嘆」, "翁老眞心冀一孫, 學成終始立家門. 臨書自念差違訓, 解旨先須反覆言. 柰復或時辭至慢, 誰將逐日習能溫. 兒如悔得前非改, 無慊人倫報我恩."

이문건은 손자에게 학문적 수양 과정을 단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노년의 중요한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

『양아록』에서 그는 우선 유배인이지만 노년의 삶을 학자적 수양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손자에게 학문적 태도를 전수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자의 성향과 수준에 맞는 가르침을 위해 애쓴다. 그러면서 학습결과에 대한 과잉기대가 손자의 현재 상태를 무시한 자신의 조급함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노인의 혜안(慧眼)으로 반성한다. 학문을 권하면서 손자의 인격적 성장을 위해 지행일치(知行一致)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의 고뇌는 격대교육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린 나이에 학습에 전념하기 힘들다는 것을 수렴하면서도 세월을 아껴 배우는 것에 집중할 것을 독려하는 모습은 조부모 특유의 안정감과 자애로움, 냉철함을 보여주는 교육적 자세인 것이다.

4.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의미

유교의 인(仁)은 공자에 의해 구체화된 '사랑' 개념이다. 인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친친(親親)의 사랑', 즉 '혈통에 대한 사랑'이다. 공자가 친친의 원리에 기반하여 제안한 인의 덕성에 대해 김경호(2014)는 다층적인 정서적 양상과 의미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 안에는 'love'와 소중히 아낀다는 'cherish', 타인에 대한 보살핌과 배려 그리고 걱정까지도 포함하는 'care', 가엾게 생각하거나 아쉬워하는 후회의 한탄과 같은 'regret', 존경과 공경을 의미하는 'respect'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아록』에도 친친의 원리에 기반한 조부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사랑이 끊임없이 넘쳐난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할아버지 이문건의 사랑이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랑은 충만하나 방향성의 상

실은 그 힘만큼의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방향성은 있으나 에너지가 없는 사랑은 불구적 인간을 양성하게 된다. 이문건은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한 가운데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으로의 지향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가문의식을 고취시키고 학문을 권한다는 측면에서 방향성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무한한 사랑을 쏟는 것이 자녀의 성장에 필요조건일 수는 있으나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토대로『양아록』에는 다음과 같은 격대교육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교육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랑의 '에너지'와 '방향성'의 균형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이다.『양아록』에 나타나는 할아버지의 양육 과정에는 사랑의 '에너지'와 '방향성'이라는 두 요소가 온전히 충족되고 있다. 자신의 하나뿐인 혈손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전제된 인격적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다. 할아버지 이문건과 손자 수봉은 안정애착이 잘 형성되어 정서적 친밀도가 높다. 이는 격대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에 의한 교육보다 훨씬 유연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풍부한 육아경험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문건은 시기마다 적절한 발달과업들을 잘 인지하여 지도하였으며, 자식을 질병으로 잃었었기에 손자의 질병에 더욱 노심초사하고 온 정성을 다해 양육한다. 이러한 사랑은 손자가 성장함에 따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에 균형을 잃기도 하지만 이문건은 손자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한다. 손자를 가르치는 궁극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그가 손자를 양육하며 제시한 것은 인격적 성장위에 학문에 정진하여 입신양명하는 것이었다. 그 길만이 자신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대안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유학에서 강조하는 인간됨과 입신양명의 입체적 인간교육[71]

71) 최혜순・양은호, 앞의 책, p.291.

의 모습이 할아버지 이문건의 양육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관계 중심'의 진정한 사회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정교육의 복원이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 간 공동사회를 구성하여 사회화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장소이다. 따라서 부모나 자녀 중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자녀의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문건은 가정사의 일상 속에서 예절, 질서, 효 등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오륜(五倫)과 연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제에 손자를 동행시키면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수봉의 언행이나 태도에 대해서도 가르친다. 함께 경험하는 모든 일상이 교육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화를 잘 내고 특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손자를 꾸짖고 체벌하며 엄격히 교육한다. 이는 유학에서 개인은 관계 속에서만 도덕적일 수 있는 '관계적 존재'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72] 그러나 엄한 훈육이나 체벌만으로 상황을 마무리하거나 기계적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음을 수양하여 덕을 갖추게 되면 비로소 모든 행동에 잘못이 없게 된다고 타이른다. 때로 훈육할 때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후회하기도 하지만, 이문건은 반드시 상황을 설명하고 다독이고 지향점을 알려주며 마무리한다. 이렇게 가정교육은 생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동의 인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하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아동은 자신의 성역할을 학습하고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욕구의 충돌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인을 지향하는 예의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도덕적인 가치관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된다.

---

72) 김세시리아, 「조선 유학의 가족서사를 통한 관계적 자아의 정교화: 송덕봉의 서간문에 나타난 부부서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철학』25, 2016, p.5.

5. 맺음말

'육아'에는 '교육'의 개념과 성장의 '과정'에 대한 관심,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책임'을 내포하고 있다. 이문건의 육아에는 교육, 성장의 과정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이 명확하다. 자신은 비록 유배되어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조부의 진정한 사랑을 통해 손자를 군자인으로 성장시킴으로서, 가문을 일으키고자 하는 할아버지의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 어찌보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육아를 인격의 완성이라는 높은 차원의 유학교육 목표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다.[73]

따라서『양아록』에 나타난 이문건의 격대교육은 육아와 가정교육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원점으로부터 다시 생각하도록 한다.

현대사회에서 부모는 다양한 이유로 육아와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려움의 근원이 부모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부모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신이 성취하지 못한 욕구를 자녀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74]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의 자아팽창 대상으로 다루어짐으로써, 결국 서로에게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의 현재 상황이나 필요를 고려하는 대신, 자신의 욕구를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표출하게 된다. 이는 대체적으로 부모 자신의 결핍에서 출발함으로써, 불안정하고 충족되지 못한 부모의 삶을 자녀에게 완성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 문제는 사랑의 에너지는 충만할지 모르나 방향성이 왜곡되거나 잘못 상정됨으로써 초래되는 결과이다.

또한 현대의 가정에서 자녀교육은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

---

73) 장정호, 앞의 논문, p.105.

74) 이민경,「중산층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담론: 자녀교육 지원 태도에 대한 의미 분석」, 한국교육사회학회,『교육사회학연구』17-3, 2007, pp.166- 167.

으며, 특히 아이들의 공부를 중심으로 '자녀교육 중심형 가족 모델'로 재편되고 있다.[75] 학업을 위해서라면 전면적인 이해와 배려가 있으며, 요구와 제외가 허용되고 조정된다. 그러나 이렇게 가정의 무게중심을 자녀에게 두고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에 동감하지 못한다.[76] 그럼으로써 가정과 학교에서 다양한 문제가 양산되고, 이는 사회의 문제로 확대·재생산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 가정은 '관계 중심형 가족 모델'로 다시 재편되어야 한다. 가족 안에서 각자가 존중받는 공동사회를 구축하여 진정한 사회화를 경험할 수 있는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양아록』에 나타난 격대교육의 의미는 현대 교육의 지향점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사랑의 '에너지'와 '방향성'의 균형을 이루는 '관계중심' 가정교육의 복원은 가정, 학교,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한 형태로서 문제해결의 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양아록』이라는 특정 텍스트를 통해 조선시대 가정교육의 한 방법이었던 격대교육을 살펴보았다. 이문건은 손자를 인격적 성장을 이룬 군자인으로 길러 가문을 번창시키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양육하며 『양아록』을 기록하였다. 격대교육은 이문건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가문의 존속을 위해 시행해야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이를 격대교육의 전형이라 정의하거나, 본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의 기록을 폭넓게 고찰하고 『양아록』을 함께 분석해야 격대교육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

75) 이민경, 앞의 논문, p.171.

76) 박영태, 「자녀교육에서 나타난 부모의 사랑표현과 아동의 지각분석」,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연구』17, 1995, p.156.

참고문헌

1. 기본자료

『擊蒙要訣』, 『論語』, 『孟子』, 『默齋日記』
한국고전번역원(http://db.itkc.or.kr 검색일 : 2017. 9.)

2. 논문

강수연, 「이문건의 아동교육관과 그 의의」, 역사와 교육학회, 『역사와 교육』 20, 2015, pp. 137-171.
김경호, 「무엇을 '사랑'이라 할 것인가?: 유학에서의 사랑의 기획」,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인간·환경·미래』12, 2014, pp. 33-61.
김소은, 「16세기 성주지역 사족의 교유와 서원건립계획」,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 26-2, 2003, pp. 157-186.
김세시리아, 「조선 유학의 가족서사를 통한 관계적 자아의 정교화:송덕봉의 서간문에 나타난 부부서사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철학』25, 2016, pp. 31-53.
김왕규, 「조선시대 독서법에 관한 소고」,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한자한문교육』5, 1999, pp.137-154.
김용기, 「出生談을 통해서 본 〈蘇賢聖錄〉 家門意識의 발현 양상」,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고전문학과 교육』21, 2011, pp. 309-348.
김언순, 「조선시대 교화(敎化)의 성격과 사대부의 수신서(修身書) 보급」, 이화여자대학교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13, 2007, pp. 7-50.
김영옥·백혜리, 「조선시대 아동 양육 방법에 관한 문헌적 탐구」,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유아교육학논집』4-1, 2000, pp. 5-25.
김은경·권대원, 「양아록(養兒錄)의 생태적 함의」, 한국생태유아교육학회, 『생태유아교육연구』13-2, 2014, pp. 153-170.
김현영, 「16세기 한 양반의 일상과 재지사족」, 조선시대사학회, 『조선시대사학보』18, 2001, pp. 63-102.
남미혜, 「16세기 사대부 이문건가의 양잠업 경영에 대한 일 연구」, 조선시대사학회, 『조선시대사학보』26, 2003, pp. 147-180.
박영태, 「자녀교육에서 나타난 부모의 사랑표현과 아동의 지각분석」, 동아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 『학생연구』17, 1995, pp. 129-161.

백혜리, 「조선중기 양아록(養兒錄)을 통해 본 아동 인식」,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22-2, 2001, pp. 205-218.
안경식, 「구비설화에 나타난 전통 아동교육관 연구」,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24-1, 2002, pp. 187-209.
양진건・김유리・현은선, 「유배양육일기 『양아록(養兒錄)』의 교육적 의미」,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27-1, 2013, pp. 147-162.
이민경, 「중산층 어머니들의 자녀교육 담론: 자녀교육 지원 태도에 대한 의미 분석」,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17-3, 2007, pp. 159-181.
이복규, 「묵재 이문건의 『묵재일기』에 대하여」, 한국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97, 1999, pp. 299-319.
이원수, 「〈사씨남정기〉, 가문의 운명과 규문의 역할」, 한국어문학회, 『어문학』90, 2005, pp. 293-315.
장성덕, 「묵재 이문건의 유배시기 교유양상」,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장재천, 「조선시대 가족문화의 특징과 교육적 의미」, 용인대학교, 『용인대학교논문집』27, 2009, pp. 181-198.
장정호, 「묵재默齋 『양아록養兒錄』의 교육학적 이해」,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연구』, 18, 2011, pp. 01-128.
정시열, 「묵재 이문건의 『養兒錄』에 나타난 조손 갈등에 대한 일고」, 동양고전학회, 『동양고전연구』50, 2013, pp. 179-209.
정연식, 「조선시대의 천연두와 민간의료」, 서울여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14, 2005, pp. 97-108.
정영숙, 「한국 여성노인의 잘 나이 들기: 성숙한 노화 개념의 탐색」,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3, 2011, pp. 5-56.
정재걸, 「격대교육과 인성교육」, 새한철학회, 『새한철학회 학슬대회 발표논문집』2015-11, 2015, pp. 109-130.

3. 단행본

안경식, 『한국 전통 아동교육사상』, 학지사, 2005.
양진건, 『제주교육 행정사』, 제주문화, 1991,
유안진, 『한국의 전통교육방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986.
윤용섭・김미영・장윤수・정재걸・최효찬・장정호・이창기, 『노인이 스승이다』, 글항아리, 2015.
이문건 지음, 이상주 역. 『양아록』, 태학사, 1997.

이순형,『한국의 명문종가』,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정연식,『일상으로 본 조선시대이야기2』, 청년사, 2001.
최혜순, 양은호,『한국의 전통육아』, 신정, 2010.
SBS스페샬〈그들에겐 특별한 것이 있다: 격대교육〉제작팀,『SBS스페샬 격대육아법의 비밀』, 경향미디어, 2013.

(**투고일**: 2017. 10. 30 **심사완료일**: 2017. 12. 19 **게재확정일**: 2017. 12. 21)

이름: 문혜경
소속: 제주대학교 박사과정수료
주소: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자우편: mhk12@hanmail.net

이름: 양진건
소속: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주소: 제주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전자우편: yigeon88@jejunu.ac.kr

[Abstract]

Alternate-Generation Educational Meaning of "Yang-A Rock" in the Exile Child Care Diary

Moon, Hye-Kyung · Yang, Jin-Geon

Yang-A Rock is a raising diary written by 16-year-old Confucius Lee Mun-gon, who cultivated his grandson for 16 years in exile. Through this record, we can get a glimpse of the specific alternate-generation education of the elementary education in child education in the Joseon Dynasty. Traditional society has differentiated alternate-generation education according to the age and sex of children. In general, parents' grandparents were transferred from the parents to the grandparents. Unlike parents who demamd a strict and high demand because of their high expectation level, the education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over a generation has become a desirable education because it has both affection and rigor based on abundant experience of child care. In the worst situation of exile, it is possible to extract the contents of the alternate-generation education which can be classified as love and care for his grandchildren, devotion to his family consciousness, and academic training through modeling in the "Yang-A Rock" where the breeder's well-deservde breeding of the family is well nurtured. This results in the meaning of the alternathe-generation education that is the balance of energy of love and direction, restoration of relationship centered family education.

Key words: Yang-A, Alternate-generation, Alternate-generation Education